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1호 개발 성공기념식 개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의 성공적 개발을 기념하기 위한 「아리랑 1호 개발성공 기념식」이 한국항공우주(연)과 한국전자통신(연)의 공동주관으로 지난 4월 6일(목요일) 15시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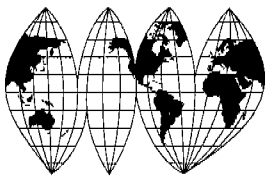
이날 기념식에는 박태준(朴泰俊)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과학기술부 장관, 산업자원부 차관, 정보통신부 차관, 대전시장, 항우(연) 소장, 정보통신(연) 원장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아리랑 1호 개발 및 발사내용을 담은 아리랑 1호 영상관람 ▲아리랑 1호 개발성공 기념식 ▲아리랑 1호 수신관계국 및 아리랑 1호 국산화 개발 전시물 관람 ▲리셉션 등의 순으로 거행되었다.

박태준 국무총리는 그동안 온갖 난관을 헤치고 헌신과 열정으로 아리랑 1호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연구기술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과 함께 '97년에 수립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위성체 뿐만 아니라 발사체 기술까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금) 청와대에서 아리랑 1호 개발 유공자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아리랑 1호 개발 유공 포상대상자는 훈장 6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 표창 13명, 국무총리 표창 14명, 과기부장관 표창 33명 등 총 70명으로 훈장 수여자는 ▲ 동백장(1) : 항공우주(연) 류장수 ▲ 목련장(2) : 항공우주(연) 이주진, 항공우주



(연) 김진철 ▲석류장(3) : 항공우주(연) 심은섭, 항공우주(연) 김병교, 항공우주(연) 백홍렬, ▲국민포장(4) : 전자통신(연) 이성팔, 항공우주(연) 김학정, 항공우주(연) 이상률, 항공우주(연) 최해진 등이다.
(항우연 정예준)

제1차 우주개발전문 위원회 개최

「우주개발전문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부차관)는 지난 3월 24일(금요일) 과학기술부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2000년도 우주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우주개발전문위원회는 '99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부처 1급 공무원 및 위촉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국가 우주기술개발 정책 수립과 함께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우주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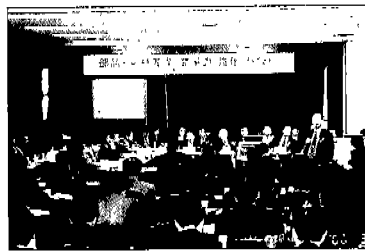
이날 우주개발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2000년도 우주개발사업에 총774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실용위성 2호 사업(총 2282억원 규모, 2004. 5월 발사목표), 과학위성 1호 사업(총 100억원 규모), 과학로켓 사업 (총 825억원 규모) 등을 추진해 나기로 하였다.
- ② '99년 12월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가 보내올 해상도 66m급 지구관측 영상과 해상도가 1km급인 해양관측 영상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심의하고,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배포는 항공우주(연)가 수행하고 상업적 활용기관과 해외기관에 대한 배포판매는 항공우주산업(주)이 수행할 예정이며, 영상자료 배포 우선순위, 보안문제, 판매가격 등을 포함하는 「아리랑 1호 영상자료 보급규정」을 제정하여 영상자료를 효율적으로 배포 판매하도록 결정하였다.

- ③ 우주개발전문위원회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위성체, 발사체, 위성활용)를 두어 관계부처 공무원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실무차원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산자부, 부품·소재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金泳鎬 산업자원부 장관과 업계·학계·연구기관·언론계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글로벌 소싱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간담회가 3. 27(월)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부품·소재산업 발전 특별법(가칭)」제정, 시장친화적 부품·소재 기술개발 시스템 도입,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및 신뢰성 보험 도입, 부품·소재분야의 전략적 제휴 방안 등에 대한 요약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산자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품·소재산업 발전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 발전 특별법(가칭)」을 금년중 제정할 계획이며, 포철·한국중공업 등 우량기업의 부품·소재 기술개발 투자펀드 조성, 외국인 임대공단화, 독일·러시아 등 기술선진국과의 전략적 제휴추진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생기연 등 8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연구단'이 사업을 발굴하고, 30여개의 벤처캐피탈 등이 '투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체 투자규모를 평가하는 등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투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로스트웍스 장세홍 대표이사는 토론발표를 통해서 지원업체 선정시 단기이익 실현을 위주로 한 업체선정 지양과 인력지원시 업체가 추천하는 인력파견, 금리 인하 등을 건의하였다.

한편 김영호 산자부 장관은 "대

일 부품·소재 무역적자가 1,300억 달러의 수준으로 이를 해소키위해 노력해야하며, 기업체의 경우 전년도 대규모의 흑자실현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며, 오늘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입법화 및 실행되기 위해서는 전 종사자들이 여론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소형 정찰헬기 실전배치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한국군의 요구조건에 맞춰 지난 2년간 세계 최대 헬기 생산업체인 유러콕터사와 개발한 주야간, 전천후 작전을 수행할 소형정찰헬기(BO105CBS-5KLH)를 수요군에 인도하여 2000년 1월말 실전 배치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육군항공 공격헬기와의 주야간 공동작전시 정찰, 임호 및 경전투임무 능력을 높이게 되었으며, 과거 적의 야간 동해안 침투시 미군헬기의 도움을 받아 작전을 수행하였던 것을 이제부터는 우리군만의 독자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술도입 생산시 국산

화 범위를 선정함에 있어, 사용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기체 조립 국산화는 과감히 지양하고 목표분야로 설정한 임무장비 체계개발 및 기체와의 체계종합 등에 한정시켜 비용 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고 한다.

소형정찰헬기(BO105CBS-5KLH)는 첨단 임무장비(MEP, Mission Equipment Package)무장 등을 추가하여 체계개발한 헬기로 고기동성과 우수한 조종성능으로 전술지형배행(NOE, Nap of the Earth)에 적합한 기종으로 평가받는다.

이 헬기의 장점은 첨단 설계 및 기술이 적용되어 정비가 용이하고, 운용 및 유지비용이 저렴하며, 야전에서 운용성이 뛰어나 정찰 임무는 물론 다목적 전투임무 수행이 가능하여 대전차공격, 지휘, 통제, 공중특수 기동작전, 탐색 및 구조, 연락, 감시, 의무후송, 정보통신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확장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소형정찰헬기는 목표물 획득 지시기를 국내 헬기 최초로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공격헬기와 전천후 공동작전을 수행할 때 적의 목표물을 발견하고 거리, 수평 및 수직각도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격헬기에 알려주는 일을 한다.

소형정찰헬기의 개발은 국내 군수헬기 산업 발전의 전환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차후 국내 기술로 헬기의 성능개량이나 개발사업 수행

시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AI 김철수 과장)

KAI 아리랑 1호 위성자료의 상업적 배포 민간대행업체로 지정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첨단 지구관측 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기에서 보내온 위성자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국·내외 상업적 민간대행업체로 선정되었다.

아리랑 1호는 1999년 12월 21일 발사되어 지난 2월 8일 한반도 일대를 촬영한 첫 사진 자료를 성공적으로 위성지상국에 송신하였다.

민간부문의 위성영상판매를 외국의 위성에 의존한 지난해의 경우에도 국내위성영상 판매시장이 40억원을 호가한 것을 살펴보면 앞으로 국내 위성영상판매 시장은 2배이상 급신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아리랑 1호 위성자료의 효과적 배포는 외화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AI 김철수 과장)

한국로스트웍스, 우수기업연구소 국무총리상 표창

한국로스트웍스공업(주)의 부설 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우주항공연구소가 지난 3월 30일(목)에 개최된 「기업연구소 5,000개 시대 개막 기념행사」에서 우수기업연구소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정부는 '81년 최초 46개로 시작한

기업연구소가 지난 2월에 5,000개를 넘어서는 것을 기념하여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문화창달에 기여한 총 50개 기관에게 대통령표창(6개), 국무총리표창(12개), 과학기술부장관 표창(32개)을 수여하였다.

한국로스트왁스공업(주)은 진공정밀 주조기술을 이용한 초내열 합금 Turbine Blade를 자체연구에 성공함으로써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Blade의 수입대체와 국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구축하였으며, 생산부터 납품까지 경쟁력 있는 양산 시스템의 구축과 전공정에 걸친 제조 기술 및 품질보증 시스템을 자립화 한 것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 받았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우주항공연구소는 공군용 기본훈련기(KT-1) 개발을 통해 국내 항공기 개발체계를 확립하여 공군 전력증강에 일조, 복합소재개발사업으로 첨단기술을 확보하여 외화수지개선에 이바지, 무인항공기 및 항공기 시뮬레이터 개발을 통한 항공기술의 국내 정착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과기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한국로스트왁스 박진부 대리)

항공우주용 소재·부품

개발사업 중기거점사업으로 착수

항공우주용 소재·부품개발사업(일명 ATEC)이 산업자원부의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자금으로 지난 1999년 12월부터 1단계 3년(2단계

2년)의 일정으로 착수되었다. 연구개발 사업비는 1단계 3년동안 정부 45억, 민간 34억원이 투입된다.

총괄관리기관은 한국기계연구원이 맡게되며 주요분야의 대신금속·한국로스트왁스·천지산업, 단조분야의 한일단조·홍진산업·기아중공업, 압출분야의 두레에어메탈, 복합재료분야의 한국항공우주산업, 후처리분야의 한전기공이 참여하고 기초연구를 위해 포항공대와 경상대학교가 참여하는 총 12개의 산학연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1단계(3년)에서는 국내에서 조속히 국산화되어야 할 항공기용 부품을 중심으로 주조·단조·압출·복합재료·후처리 등 5대 기술분야에서 총 40여 개의 개발대상을 발굴하여, 이를 국산화한다. 특히 본 개발기간 동안에는 연구

소 및 대학이 기초연구를 통해서 보유한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연구보다는 개발에 치중하는 국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한국기계연구원 하재우 연구원)

경상대, “전반기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경상대학교의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센터와 항공공학특성화사업단에서는 “2000 전반기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한다.

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경상대 임현수)

경상대,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센터 “2단계 1차년도 연구성과발표회” 개최

경상대학교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센터는 지난 2월 18일(금) “2단계 1

2000 전반기 전문가 초청 세미나 일정

일 자	발 표 자	소 속	발 표 주 제
3월 17일(금) 오후 4시	윤 호 철 /부사장	Space Technology	우주산업의 정보화 응용
3월 31일(금) 오후 4시	박 원 옥 /책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급냉법에 의한 항공기용 Mg 합금개발동향
4월 7일(금) 오후 4시	조 만 형 /교 수	한양대학교 신소재 공정공학원 개발현황	항공재료의 화학아연신공정
4월 14일(금) 오후 4시	최 청 호 /중 령	항공기술연구소	항공기 부품개발을 위한 평가 기술
4월 25일(화) 오후 4시	김 철 완 /박 사	General Motors Vehicle Design	Computational Aerodynamics for
5월 26일(금) 오후 4시	윤 의 수 /책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터보기계 공력 설계기술
6월 2일(금) 오후 4시	이 용 현 /책임연구원	국방과학기술연구소	항공기용 경량소재 개발

장소 :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37동 302호(멀티미디어실)

(문의처 : 0591-751-6101)

차년도 연구성과발표회”를 경상대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항공기부품 기술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산학으로 수행하고 있는 19개의 연구과제의 주요 결과와 성과를 발표하고, 아울러 그동안 지역의 항공기부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반 센터사업을 소개하였다. (경상대 임현수)

제4회 국제 티타늄 기술 세미나 개최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티타늄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지난 3월 15일(수)에 POSCO(서울) 아트홀에서 약 100여명의 국내 티타늄 업계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국제 티타늄 기술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동 세미나에서는 티타늄의 우수한 특성과 현재의 응용분야 및 미래의 응용가능분야에 대해 국내외의 전문가가 초청되어 티타늄의 기초지식에서 응용분야까지 넓은 분야를 다루었다. 국내 초청 강사는 이용태(KIMM), 허선무(ADD), 이현자(기술표준원)였으며, 해외 초청강사는 Nakakura Mituyasu(Diado), Mr. Vasily Semeniuta(Grandis Metals), Dr. K. Suzuki(Kawasaki Steel)였다.

이번 세미나는 티타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정된 자료 및 지식으로 인하여 성장 및 발전이 더딘 국내 티타늄 업

계·대학·연구소간의 정보 및 항공기 부품 개발 등 신기술개발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티타늄은 경량, 고강도, 내부식성 및 환경친화도가 우수한 소재로서 항공기 부품, 지상병기 등 군수용으로부터 화학장치, 건축, 토목, 생체의료, 스포츠,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수용 소재로의 사용처가 기대되는 소재로 그 용도를 넓혀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기계연구원 하재우 연구원)

중국의 항공우주기술 민수전환 현황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동서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군수품을 생산하던 軍工企業의 민수전환을 추진하는 軍轉民 사업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국방분야의 대표적인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민수전환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간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연구개발된 항공우주 시스템 및 부품산업의 보유기술을 이용하여 시장경쟁력이 있는 산업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국가적 지원체계를 강구해 왔다. 중국의 군수정책에 의하여 항공기 및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내륙의 산간지역인 三線地域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분야의 軍轉民 사업은 중국의 내륙 발전전략

과 아울러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과 직결되어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과기장관 회담의 후속조치로 중국의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軍轉民 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제4차 조사단이 결성되어 北京(科技部 軍轉民處, 國防科技工業委員會, 國防科技信息中心, 航空研究院, 航空材料研究所), 四川省(科技部 國際合作處, 成果處, 成都飛機, 天奧實業, 光明技材廠), 貴州省(科技部 國際合作處, 成果處, 雲雀機械, 紅陽飛機)을 현장 방문하였다.

현장방문 조사 결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軍轉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기부와 국방부에 분산되어 있던 지원조직을 국방부 산하 國防科學技術工業委員會로 통합하여 지원체제를 일원화 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의 직접적 지휘를 받는 省 차원의 국가과기공위와 더불어 省 과기부 내에 성과처를 두어 지역발전과 더불어 軍轉民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항공기 엔진의 압축기를 생산하는 티타늄합금 주조기술을 이용한 골프클럽 생산, 항공기용 도료기술을 이용한 건축용 방수도료 생산, 항공역학기술을 응용한 자동차 부품생산, 항공우주 전자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TV, 오디오 생산, 레이저 부품생산기술을 이용한 광학렌즈 제조 등이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중국정부에 의한 강력한 지도하에 항공우주 군수기술의 민수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부족하였다. 이는 정치경제체제의 산물인 노동의식, 개인자본 미성숙,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 하부구조의 미완성,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의 미개발, 경영의식 미성숙 등의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의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중국이라는 관점에서는 군수기술의 상품화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 된다.

양국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기술의 상품화에 관한 한국의 앞선 경영기법을 軍工企業 고위관리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국내 선진 공장의 산업시찰을 통한 협력 Partnership을 강구하고, 경제낙후지역에 위치한 중국의 항공우주관련 과학기술자를 유치하여 공동연구를 통한 인적교류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의 기술과 노동력과 접목하여 진정한 軍轉民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한중과의 국제협력 과제 발굴되어질 예정이다. (한국기계연구원 하재우 연구원)

제7회 항공기

개발기술 심포지엄 개최

오는 4월 21일 국방과학연구소 3본부가 주관하는 제7회 항공기 개발기술 심포지엄이 국방과학연구소 강당에서 열릴 계획이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가 후원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1)체계종합/시험평가/품질보증, 2)공력성능, 3)비행조종, 4)구조항공기기/소재, 5)항공전자, 6)추진계통 분야의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일시 : 2000년 4월 21일 (금)

장소 : 국방과학연구소 강당

주최 : 국방과학연구소

후원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문의 전화 : 042-821-2321 ~ 2323

Fax : 042-821-2223

삼성항공,

삼성테크윈(주)로 회사명 변경



삼성항공이 1999년 10월 1일자로 항공기사업을 양도하고, 반도체 핵심부품 및 장비, 광디지탈, 터보기기 및 엔진, 특수방위사업 등 4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최첨단 전자정밀기기 전문업체로 성장한다는 모토아래 삼성테크윈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SAMSUNG TECHWIN은 Samsung

의 일원으로서 기술을 통한 신로의 비즈니스를 창조하고 기술력으로 승부한다는 기업정신을 함축하고 있으며, 'Technology + winner'의 의미를 조합하여 21세기 삼성테크윈의 비전을 담고 있다.(삼성테크윈 장기영 과장)

기아중공업(주)

위아(주)로 회사명 변경



기존의 기아중공업 주식회사가 현대-기아그룹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활용, 기존의 자동차부품/공장기계/로봇/항공기부품/특수기계/프레스/제철제강 설비 등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첨단공업을 선도하는 산업의 핵심이 되어 21세기 무한경쟁속에서 초우량 핵심 선도기업으로 도약, 고객만족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목표 아래 위아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회사명은 국문 기아중공업 주식회사가 위아 주식회사로, 영문 KIA HEAVY INDUSTRIES CORP.가 WIA(World Industries Ace) Corporation으로 적색의 KIA 마크가 군청색의 WIA마크로 변경되었다. (위아 김우태 대리)